

## 현용기록: 생산과 관리 (Organizing and Controlling Current Records)

- 고선미(2006),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최 광 호\*

### 1.

기록관리학과 관련된 외국서적들을 보면 매번 느끼지만 혼자서 볼 때는 머릿속에 대강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려 하려고 하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sup>1)</sup>

외국서적을 번역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원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국의 언어로 표현한 것을 역자는 독자의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은 양쪽 언어 모두에 능통해야 한다. 뿐만 아

---

\* 명지대 기록관리학 석사,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자료실장  
현) 국무조정실 기록연구사로 근무 중

1) 'document', 'record', 'archives'가 의미하는 바는 머릿속에 그려지나 번역할 때마다 다가오는 고민들, 'record control', 'record manage'는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번역 작업을 진행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기록관리와 관련된 어휘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라 다른 문화환경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원저자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한문장, 한문장을 번역하면서 겪는 갈등과 고민은 아마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것이다. 특히 혼자만의 연구가 아니라 책으로 출판한다는 전제로 번역을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작업일 것이다. 그래서 난 번역서를 출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이 책의 역자 역시 ICA의 MPSR 시리즈의 하나인 『Organizing and Controlling Current Records』를 번역하면서 겪었던 고통의 흔적들이 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아마도 역자는 마음속에서는 수십 아니 수백번 작업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sup>2)</sup>.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외국의 기록관리와 관련된 주요 서적들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이유는 뭘까? 특히 이 책과 같이 우리의 기록문화와 가장 상이한 기록생산에서 최초의 관리 체계로 끌어들이는 단계(역자가 현용이라고 번역했던 'current' 단계)에 대한 번역서가 주는 의미는 뭘까? 기록관리 일선에서 이 책의 내용과 우리의 기록 관리환경과는 다름을 뻔히 알고 있는 역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 2.

MPSR 시리즈 백미는 각 단원의 끝에 있는 ‘학습문제’이다. 처음 이 시리즈를 읽을 때는 학습문제 부분은 그냥 건너뛰는 부분이었다. 본문

---

2) 사실, 한국 기록관리학 표준어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서를 번역할 때 단어 하나하나마다 선택의 갈림길을 맞았을 것이다. 하다못해 세미나 발제문 번역하는 것도 여간 고통스런 일이 아닌데 말이다.

만 읽는 것도 어학능력의 한계로 벅찼기 때문이다. 학위 논문을 마치고 민간 기록관에서 일할 때 프로젝트 발제문 작성에 필요한 기록관리 기본개념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간단명료한 문체로 쓰여진 MPSR 시리즈를 많이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MPSR 시리즈는 그 형식이 인용하기 매우 간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어느날 MPSR 시리즈의 서장이라 할 수 있는 “Principles and Contexts”의 첫 단원, 첫 학습문제의 첫 질문인 ‘records란 무엇인가?’를 보고 얼마나 당혹했는지 모른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야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활동하던 민간 기록관에 맞는 ‘record’의 개념정의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하던 기록관을 염두에 두고 한문장한문장 읽어나갔다. 그렇게 다시 읽고서 본 ‘학습문제’는 내가 작성해야하는 발제문의 주요 장절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본에 충실해야 그 다음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기록관리의 기본개념에 충실하다면 이를 통해 공공영역의 기록관리이든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원칙과 개념은 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MPSR 시리즈는 기록관리의 기본개념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문제’는 그러한 기본개념이 제대로 체득했는지 확인하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sup>3)</sup> 기본개념들만 제대로 체득하고 있다면 응용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이고 연구자,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기본개념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

3) 기록관리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체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재로 이 시리즈 만큼인 좋은 것이 없고 생각한다.

최첨단의 IT기술은 한국을 짧은 기간동안 세계적인 디지털 기록관리 국가로 이끌었다. 기록의 생산부터 유통, 활용 그리고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의 기록관리환경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과 사뭇 다르다. 사실 금번 출판된 이 『현용기록 : 생산과 관리』에서 말하는 기록관리 프로세스는 전자저인 기록의 생산과 유통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기록관리환경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의 기록관리 담론들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현장 연구사들의 관심과도 다소 떨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 책이 의미있는 것은 기록관리의 기본 개념들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되고 있는 기록관리 방식은 다르지만 그렇게 수행함의 근간이 되는 원리와 원칙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하고 의미있는 것들이다. 아무리 최첨단 IT기술로 무장한 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기록관리 기본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지 않았다면 수십, 수백억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라도 2년도 못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현장의 연구사들은 직접 두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기록관리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수백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리에 있어 기본개념 이해하고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강조하는 아무리 반복해도 과하지 않다. 공공영역에서의 기록관리이든, 민간영역에서의 기록관리이든, 전자 시스템에 기반한 기록관리이든 아니면 아날로그 적인 기록관리이든 간에 기록의 개념과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념과 원칙들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원칙과 기본개념을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적용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기록관리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에서부터 현장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 3.

우리는 종종 현상과 성과에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다. 성과를 위해 원칙과 기본을 소홀히 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할 때 기본을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기록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자적이고 임의적인 기록관리의 성과는 지금은 위대해 보여도 역사와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 기록관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한번 왜곡된 기록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고되고 힘든 일이다. 한국의 기록관리 환경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최적의 기록관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기록관리의 원칙과 기본개념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한국 기록관리가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 필요한 기본원칙과 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서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